

“제주 학대 피해 노인 연간 130~160명”

도, 최근 3년 제주지역 노인학대 현황 분석 가해자는 배우자·아들... 장소 '가정 내' 최다

제주지역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 수가 연간 적게는 130여명에서 많게는 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배우자와 아들에 의한 가해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공받은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대 피해 노인 수는 44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34명, 2021년 148명, 2020년 159명 등이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별로 보면 '가정 내'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 새 가정 내 412건, 시설 21건, 공공장소 4건 등이다.

가해자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집계된 441건 중 배우자와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각각 139건, 16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언어·정서적 학대와 신체 학대 건수가 각각 731건, 66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노인 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총 13개소(21건)에 달했으며 이중 행정처분까지 받은 시설은 6개소다. 그밖에 개선명령 처분 4개소, 과징금 1개소, 업무정지 1개소 등이다.

제주도는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나섰다.

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시설 관련 협회 등과 3차례의 논의를 거쳐 노인요양시설 모니터링, 사례 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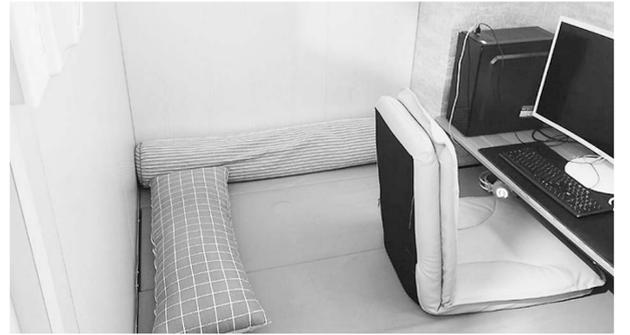
앞으로 도내 모든 요양시설은 의

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된다. 연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가 모니터링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 간 지급 중단한다.

또 판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강대기자 dhkang@ihalla.com



청소년을 출입시키다 적발된 룸카페 내부. 제주자치경찰 제공

불법영업 '변종 룸카페' 첫 적발 20여개 밀실 형태로 영업하며 청소년 출입시켜

제주지역에서 최근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부각된 신·변종 '룸카페'에 나이 확인 없이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업소가 첫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일 남·여학생을 포함한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을 허가한 혐의로 제주시내 A업소(룸카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출입 '룸카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제보를 받고 A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섰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업소는 반경 2km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업소의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방 내부에는 TV와 컴퓨터 등 시청각 기자재를 갖췄다.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와 깔고 간이 쇼파 및 쿠션 등을 구비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2시간을 기본으로 1만원에서 2만원가량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으며,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업소는 반경 2km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업소의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방 내부에는 TV와 컴퓨터 등 시청각 기자재를 갖췄다.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와 깔고 간이 쇼파 및 쿠션 등을 구비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2시간을 기본으로 1만원에서 2만원가량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으며,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업소는 반경 2km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업소의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방 내부에는 TV와 컴퓨터 등 시청각 기자재를 갖췄다.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와 깔고 간이 쇼파 및 쿠션 등을 구비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2시간을 기본으로 1만원에서 2만원가량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으며,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업소는 반경 2km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업소의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방 내부에는 TV와 컴퓨터 등 시청각 기자재를 갖췄다.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와 깔고 간이 쇼파 및 쿠션 등을 구비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제주서 겨울나기 천연기념물 '저어새' 겨울을 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들이 7일 하도철새도래지에서 강한 바람을 피해 휴식을 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IB 성적, 수능 성적과 동일 위상 부여해야” 어제 국회 ‘IB 공교육 과제’ 세미나서 주제 발표

IB(국제 바칼로레아) 성적도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향후 수능 성적과 동일 위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주최한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IB학생들이 대입 정시 지원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권오현 서울대 사범대 교수(전 입학본부장)는 'IBDP(IB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들의 국내 대입 관련 쟁점(대입 형평성을 중심으로)'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IBDP 졸업자들도 국가 교육과정에서 인정한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이기에 수시 정시 응시 자격 및 평가과정에서 근본적인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학생들은 대입 정시

에서 불리한 부분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수능 점수(혹은 등급)를 대체할 요소들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IB 성적에는 수능과 같은 성격의 외부시험(EA)이 포함된 만큼 IB 시험 결과를 대학 입학자격을 사 중 하나로 인정하고, 향후 수능 성적과 동일한 위상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함께 주제 발표한 이해정 교육과학기술연구소장은 "IB 학생들이 대입에 특혜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부미한기자 bu8385@ihalla.com

초등생 제자 폭언·폭행 테니스 지도자 집행유예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테니스 지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초등생 제자 5명에게 폭언·폭행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제주시 고문변호사 자문 2020년 174건→작년 305건

제주시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령 해석 등을 자문 받는 건수가 2년 사이에 갑절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이어나갔다.

제주시 고문변호사는 제주시와 관련된 각종 행정심판, 소송, 법령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관련 조례에 따른 제주시의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은 총 3명이다. 이에 맞춰 이달에도 임기 만료(2년, 두 차례만 연임 가능) 등으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지난 3년간 제주시 고문변호사가 자문한 건수는 2020년 174건, 2021년 185건, 2022년 305건으로 집계됐다. 행정 여건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공직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 필요성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공무원들도 행정처분 등에 앞서 한번 더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실제 고문변호사와 별개로 변호사가 채용된 제주시 법제지원팀 활동 현황을 보면 한 해 제주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법률 자문도 지난해 기준 1278건에 달한다. 전선희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을·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황이상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
성분

토양의 pH를 맞추는
역할, 양분용해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팰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카리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상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